

“ 주께서 아시는가? ”

■ 이종윤 원로목사

저희가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호 8:4)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주관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속에서 끊없이 일어나고 있다.

첫째, 주님께 묻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아실 바 아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는 밖에 나갈 때와 귀가할 때 반드시 복명하는 것이 효도의 자세다. 만일 자녀가 그의 하려고 하는 일과 또 하고 있는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이를 알 수 없으며, 알아도 아는 체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자녀 사이에도 적용되는 원리다.
 사울왕의 패인은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윗왕의 승리의 비결은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잘 했다는 것이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 모독 행위다.
 설령 세상에서 원하는 일들이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모르시는 성공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없다.

둘째, 주님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일은 주님의 아실 바 아니다.
 물음과 허락은 다르다. 그러므로 주님께 물은 일이라고 해서 허락받지 못한 일은 함부로 손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물음이란 것은 통고와 달라서 상대방의 대답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기도로 물은 일이라고 그의 허락 여부에 따라 행동해야지 아직 허락 받지 않은 일을 일방적으로 믿고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 될 뿐이다. 사도 바울은 전도까지도 주의 허락 여부에 따랐으며(행 16:6) 다윗왕은 성전을 세우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지시 여하에 따랐다. (대상 17:4) 주님을 위해 좋은 일이니까 물론 허락하시겠지 하고 속단하는 것은 탈선을 범하게 된다. 좋은 일이라고 다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며,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더디더라도 주의 허락을 기다려서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 놓은 일이란 마치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은 것 같아서, 주의 아실 바가 못 되며,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결코 행복스런 일도 못된다.

셋째, 주님의 방법대로 되지 않는 일은 주님의 아실 바 아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허락을 받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일이 주님의 방법(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준공검사에서 합격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 물은 일이요 또 허락 받은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추진하는 방법도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문제는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했느냐에 있다. 도대체 세속적 방법에 의한 교회 사업이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주님의 방법 아닌 것들이 너무 난무하는 세상이다. 우리는 단순한 호사가가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일어서서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그것은 기도의 자세로 나쁘지는 않으나 그 손이 거룩한 손이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한다.

거룩한 손이란 피 묻지 않은 깨끗한 손이어야 한다. 구제의 손이어야 하고, 주는 손이 되어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한 마음과 남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타심(利他心)이 있어야 한다. 기도가 열납되는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주께서 아시는 바다. 정성과 감사와 간절을 담은 새벽에 드리는 기도다. 핍박받는 시간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부모가 자식이 병중에 있거나 환난을 만났을 때 측은지심으로 그의 요구를 들어 주듯이 하나님도 성도가 환난 중에 긍휼을 쏟으신다. 하물며 그 환난이 주를 위해 받는 환란임에랴! 회개하는 시간을 주님은 열납하신다. “저는 죄인입니다” 한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 오늘도 주님이 아시는 성도가 되고 주님이 열납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서울교회 31주년 기념 주일인 동시에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주일 1,2,3부 예배 후마다 교회정관개정을 위한 공동의회 투표가 있습니다. 예배에 들어오기 전 먼저 교구별로 준비된 테이블에서 공동의회 회원자격을 확인받으시고 투표지를 수령한 후 예배 후 공동의회 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3층에서 예배드릴 분도 꼭 2층 교구 테이블에 들러 투표지를 받은 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정상 공동의회 참석이 어려운 분은 지난번 안내한 대로 위임받은 분이 위임장 또는 카톡이나 휴대폰의 위임 문자를 제시한 후 투표지를 받아 대신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동의회에 서울교회 재적교인 전체가 한분도 빠짐없이 직접 또는 위임으로 참여하여 다시는 법적분쟁의 위험에 빠지지 않는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1127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 | | |
|--|--|--|
|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서울교회QR코드  |
|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 | |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이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허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프, 린롱,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 | |
|--|--|--|
|  |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  |
| |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 | |
| | 답임목사 Senior Pastor 손달익 Rev. Son , Dal-ig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
| |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 |

“ 교회, 세상의 희망 ”

■ 요한계시록 2:8-11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며 교회 창립 31주년 주일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으나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양육되며 거룩한 사역들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에 따르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고 하셨습니까. 생명의 관이란 삶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입니다. 개인에게는 죽음의 종말이지만 교회의 종말은 역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교회에 대한 역사의 마지막 평가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오늘의 과제를 어떻게 감당해 나가는지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1. 아시아의 교회들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은 대표적인 친로마 도시들에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소아시아 지역이 '로마보다 더 로마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이 지역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예루살렘 교회의 원로 성도들을 모시고 예배소로 들어왔고 바울도 이곳에서 선교에 힘썼습니다. 복음전파가 이루어지면서 로마의 황제숭배 종교와 충돌이 일어났고 교회에 대한 가혹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속출하는 참혹한 일이 나타나다가 하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교자들에게는 회개와 각성을, 순교자들의 교회에는 칭찬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일곱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를 영적으로 '음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결한가? 우리는 주 예수님만 사랑하는가? 우리 교회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진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2. 서머나 교회의 환난
 많은 유대인들이 서머나에 이주했고 회당을 중심으로 결속하고 단합하여 도시의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할 만큼 유대인들의 악행은 너무나 가공했습니다. 그 결과 서머나의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에 직면했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이란 상징적인 의미로 시험이 그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이에 서머나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두려워 말라'이고 둘째는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죽음을 두려워 말고 순교의 각오로 신앙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할 시기가 지금입니다. 죽을 각오로 예배에 참석합시다. 죽을 각오로 헌금하고 봉사합시다. 죽을 각오로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3. 주님의 축복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평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계 3:17)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단으로 흔들리지도 않았고 당파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윤리적 문제 때문에 소란스럽지도 않았고 교회의 재정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교회들은 가난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한 교회 명단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습니다. '부요하다'고 만족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기들에게 사용할 뿐 섬김과 나눔으로 십자가를 지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반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 죽음마저도 불사했던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은 죽어도 사는 사람이요 영원한 천국의 은혜가 보장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희망을 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과 희망으로 무장하고 담대하게 전진합시다. 교회가 역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 | 시 간 | 인 도 | 기 도 |
|-----|--------|---------|--------|
| | Time | Prsider | Prayer |
| I | 오전 9시 | 장석남 목사 | 임상헌 장로 |
| II | 오전 11시 | 김익환 목사 | 이민호 장로 |
| III | 오후 2시 | 전재홍 목사 | 전재홍 목사 |

-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시 103:1-2... 인 도 자
-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 찬 송 Hymn9(1절)... 다 함 께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15(구주강림1)... 다 함 께
- * 송 영 Doxology 1 다 함 께
- 기 도 Prayer 말 은 이
- 찬 송 Hymn210(245)... 다 함 께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계 2:8-11... 인 도 자
-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 봉헌송 Offering Hymn634... 다 함 께
-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대
-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 설 교 Sermon“교회, 세상의 희망”... 손달익 목사
- * 찬 송 Hymn359(401)... 다 함 께
-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 찬 양 대 | | | | | | 봉 헌 송 | | |
|---------|------|-----|--------|-------|---------------|---|-----|-------|
| 예 배 | 찬양대 | 지휘자 | 오르가니스트 | 피아니스트 | 팀파니스트 | 찬양대 | 지휘자 | 피아니스트 |
| I 부 | 가브리엘 | 백경화 | 전지희 | 장희원 | 윤주일 | 가브리엘 | | |
| II 부 | 할렐루야 | 최유현 | 차주연 | 김양언 | 윤주일 | 그레이스앤드벨 | 송재월 | |
| III 부 | 임마누엘 | 유태왕 | 전지희 | 이주희 | 윤주일 | 아멘관현악단 | 임범창 | |
| 찬양예배 | 베들레헴 | 박래경 | 안효주 | 박수강 | 윤주일 |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지여다 머리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 | |
| 수요 I 부 | 호산나 | 구민영 | 김윤지 | 홍혜란 | 금주의 성구 | | | |
| 수요 II 부 | 시 온 | 최유현 | 김예지 | 조현정 | | | | |

찬 양 예 배

-교회 설립 31주년 감사예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 목 도 다 함 께
- 성 시 시 139:16-17 인 도 자
- 찬 송 20(41) 다 함 께
- 기 도 이승준 집사
- 찬 송 321(351) 다 함 께
- 성 경 수 1:6-9 인 도 자
- 사명자대회 결과보고 말 은 이
- 찬 양 찬 양 대
- 설 교 ... “강하고 담대하라” ... 설 교 자
- 사명자대회 본부 특송 말 은 이
- * 찬 송 208(246) 다 함 께
- * 축 도 설 교 자
-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예배

- I 부 오전 11시 ·인도: 조동수 목사
- II 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 기 도 ... I 부: 이갑연 권사 II 부: 정윤희 권사
- 성 경 왕상 12:1-15 인 도 자
- 찬 양 찬 양 대
- 설 교 “강함의 유혹”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박수강·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장석남 목사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설 교 김익환 목사

서울가족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시 피아니스트: 김복희2
설 교 손달익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9시 | 본당 |
| | II 부 예 배 | 오전 11시 | |
| | III 부 예 배 | 오후 2시 | |
| | 찬 양 예 배 | 오후 4시 30분 | |
| 수 요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11시 | 본당 |
| | II 부 예 배 | 오후 7시 | 웨스트minster 홀 |
| 새 벽 기 도 회 | | 오전 5시 30분 | 웨스트minster 홀 |
| 금 요 기 도 회 | | 오후 8시 | |

교회소식

- ◆ 모 임
- 1. 공동의회
 - 안건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일시 : 11월27일(주일) 1부 예배 후부터(오후 4시 투표 마감) 찬양예배 이후까지
 - 장소 : 본당
- 2. 권사 월례회 / 27일(주) 3부 예배 후 101호
- 3.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 30일(수) 수요 2부 예배 후 교회 정문
- ◆ 알 림
- 1. 101호
 -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2. 102호
 -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 10분-11시
- 3. 403호
 -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4. 501호
 -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5. 601호
 -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 6. 602호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 10분 · 오후 12시 10분-오후 1시
- 7. 603호
 -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 8. 609호
 -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 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 9. 701호
 -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10. 702호
 -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11. 706호
 -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12. 교회설립 31주년 /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새가족소개

| 성 명 | 다락방 | 소속부서 | 인도자 | 성 명 | 다락방 | 소속부서 | 인도자 |
|-------|-----|------|-----|-----|-----|------|-----|
| 김소영14 | 1-5 | 마리아 | 본인 | 신서해 | 1-5 | 유년부 | 본인 |

13. 세례식 신청 마감 - 금년도 네번째 세례식인 12월 세례(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12월 11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세례 교육 : 12월 4일(주일) 오후 12시 20분 609호
- 세례 문답 : 12월 4일(주일) 오후 1시 30분 609호
-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 장 레
 1. 故 조용부 장로(5교구 조원영 목사의 부친, 이진희 사모의 시부) / 11월20일 별세, 11월23일(수) 발인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 주일1,2,3부 | 찬양예배 | 주일예배 합계 | 수요예배 | 새벽기도 |
|----------|------|---------|------|--------|
| 1,722명 | 790명 | 2,512명 | 396명 | 3,870명 |

누룩운동

예수님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 천국의 질적 성장을 말씀하셨다. 한덩이의 작은 누룩이 항아리 속의 가루 전체를 변화시키듯 주님의 복음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조용히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천국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보이지 않게 내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말이다.

제도를 고치면 사회가 변화될 줄 아는 것은 세상을 너무 모르는 이들의 오판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인간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사회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오늘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누룩 운동을 이 사회 속에서 일으켜야 할 때가 되었다. 천국복음누룩운동 본부인 교회가 천국복음을 확산시킴으로 구부러진 것은 바르게 잡아주고 부패한 부분은 도려내고 어둡고 그늘진 곳엔 빛을 비추어 신선하고 생명력 있는 진리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

언어생활, 일상생활은 물론 경건생활에까지도 새롭고 깨끗한 생명력이 넘치는 복음의 누룩을 던져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 | |
|----------------|--|
| 청 결 유 지 |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
| 에너지 절 약 |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
| 주 일 성 수 |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